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KBS광주 열린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탐나는 TV	30 생활의 달인(재)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삼남매가 용감하게(재)	45 크리켓팡2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금혼령(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법전(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5 시사 ON LIVE	
2	00 KBS 뉴스 10 이를 포레스트- 두 번째 계절		55 보통의 존재	00 뉴스브리핑
3	00 전국을 달린다 1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몽계공학 2(재) 30 어린이 동물티비(재)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생생정보 스페셜	55 5 MBC 뉴스	00 KBC특선다큐 세계문화유산 탐방기
5	00 KBS 뉴스 5 30 생생 3D!	00 뮤직뱅크	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시사토크 촌철살인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테마기행 길	50 남도스럽게
7	00 KBS 뉴스 7 40 설 특선 다큐 그린 플래닛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신상출시 편스토랑	5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금혼령	00 궁금한 이야기 Y
10	00 시사 직격 50 다큐 온	00 슈퍼맨이 돌아왔다		00 법전
11	40 KBS 뉴스라인	30 설 특선영화 양자물리학	10 나 혼자 산다	20 설날특선영화 강릉
12	10 설 기획 독립영화관 <효자>			

‘남이 될수 있을까’ 강소라

“진정한 사랑은 위기를 잘 넘기는 것”



이혼 전문 변호사役 “데뷔 때보다 더 떨려”

결혼과 출산으로 한동안 연기 활동이 뜸했던 배우 강소라(사진)가 지난 TV 오리지널 드라마 ‘남이 될 수 있을까’로 오랜만에 시청자들을 만난다.

강소라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남이 될 수 있을까’ 제작발표회에서 “데뷔할 때보다 더 떨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소라의 드라마 출연은 ‘변혁의 사랑’ (2017) 이후 6년 만이다. 영화도 특별출연으로 잠깐 얼굴을 비친 ‘비와 당신의 이야기’ (2021)를 제외하면, 결혼 전 개봉한 ‘해치지 않아’ (2020)가 마지막 작품이다.

강소라는 “일을 좀 쉬다 보니 복귀할 때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며 “그래도 현장에서 다른 배우분들, 감독님들이 편하게 맞아줘서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이 될 수 있을까’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사랑과 인생 성장기를 다룬 드라마로 강소라는 ‘소송의 여신’으로 불리는 스타 변호사 오하라 역을 맡았다.

강소라는 “일은 프로페셔널하게 하지만 사적인 면에서는 미숙한 면이 있는 반전 있는 캐릭터”라고 배역을 소개했다.

또 강소라는 결혼과 출산을 겪은 이후 로맨스 작품을 하면서 감정 이입을 더 잘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연인 일 때의 이별과 결혼한 이후의 헤어짐은 무게감이 다르다 보니 이혼을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로맨스를 다룬 많은 작품이나 동화책을 보면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끝난다”라며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은 결혼에 골인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 사랑을 유지하고 위기를 넘기느냐”라고 덧붙였다.

극 중 오하라의 전 남편이자 이혼 변호사인 구은범 역은 배우 장승조가 연기했다. 오하라와 구은범은 이혼 후 완전히 남이 돼 살다가 어느 날 같은 법률 사무소에서 재회하게 된다.

장승조는 “청춘남녀가 아니라 이혼남녀가 다시 만날 수 있을 지를 다루는 소재가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구은범은 동물에 튀겨 죽이고 싶을법한 인물로 굉장히 뻔뻔하고 능청스럽다”며 “드라마를 보면 나쁜 놈으로 비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드라마에는 두 사람 외에도 성격이 강한 ‘상여자’ 강비취 역에 조은지와 조장집 5대 독자 권시욱 역에 이재원이 출연해 재미를 높인다.

연출을 맡은 김양희 감독은 “이혼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다른 로맨스와 차별점을 두려고 했다”며 “성숙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랑 앞에서는 미숙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드라마를 통해 ‘미숙해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0일 (음 12월 29일 戊寅)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정연한 순서와 체계대로 처리하라. 48년생 노력한다면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60년생 관계하는 이와 호흡이 중요할 때이다. 72년생 결실이 예견되니 기쁘게 파종하라. 84년생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야 할 때다. 96년생 상대의 언행 속에는 의 미심장함이 있거늘 진정된 뜻을 이해하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4, 97</p>	<p>卯</p> <p>39년생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나타나라. 51년생 굳은 각오로 임한다면 반드시 흥성도 사라지리라. 63년생 일 반적 보편성을 결여한 주관은 오류를 날기 쉬운 국량이다. 75년생 노력에 비해 후한 대가가 따르리라. 87년생 본격적으로 실행 해야 할 단계이다. 99년생 결부 지을 필요까지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26, 85</p>	<p>午</p> <p>42년생 반드시 확인해야만 급락하는 형세를 방지한다. 54년생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리라. 66년생 지나 간 흔적을 잘 살펴보면 힌트를 얻게 되리라. 78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벽만 하루가 될 것이니라. 90년생 취지는 좋으나 실행의 방안이 문제가 있다. 02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한 요청되는 때 이니라. 행운의 숫자 : 33, 57</p>	<p>酉</p> <p>45년생 상대는 다 알면서도 내용을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7년생 방심하지 말고 새어 나가는 점이 없는지 날마다 살펴 봐야 한다. 69년생 계획대로 추진해도 무방하다. 81년생 미진한 부분을 손질하라. 93년생 기다려 왔던 것은 들어오지만 쓸 곳은 더 많으리라. 05년생 정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0, 74</p>
<p>丑</p> <p>37년생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니라. 49년생 현실적이고 가 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방하다. 61년생 경험에 비추어서 판 단한다면 틀림없겠다. 73년생 쓸모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5년생 막연하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97년생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05, 94</p>	<p>辰</p> <p>40년생 편의만을 도모하다 보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52년생 신중히 진력한다면 성과는 예상했던 바보다 크다. 64년생 이 렵 수도 없고 저릴 수도 없을 것이다. 76년생 조짐이 보이면 진행 방향을 수정해도 좋다. 88년생 확실하게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백 번 낫다. 00년생 국면을 전환시켜 보려는 시도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7, 96</p>	<p>未</p> <p>43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원만했던 상대와 갈등이 생길 수다. 55년생 객관적인 판단과 냉철한 시각이 절실한 때이다. 67년생 당해 문제가 원활치 못하니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79년생 전문성이 확보 되지 않으면 문제점을 낳는다. 91년생 재점검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03년생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친다면 손실이 크다. 행운의 숫자 : 11, 67</p>	<p>戌</p> <p>34년생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느니라. 46년생 못 이긴 적고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은 모양새이니라. 58년생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큰것을 버리겠다. 70년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82년생 현대에 휘말려든다면 그 즉시 후회만 한다. 94년생 순조롭다고 인식할 때 복병을 만나기 쉽다. 행운의 숫자 : 38, 81</p>
<p>寅</p> <p>38년생 실행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행복지수가 매우 높아진다. 50년생 기존 질서를 재편하는 파격적인 것이 낫다. 62년생 다투 면 손재주, 양보하면 득이 된다. 74년생 짧은 시간을 할애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 86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합리적으로 처리해야겠다. 98년생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천양지차이다. 행운의 숫자 : 99, 78</p>	<p>巳</p> <p>41년생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 53년생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5년생 일시적인 현상에 좌우된다면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77년생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어야만 진정한 목표를 달성한다. 89년생 취지는 좋 으나 무리움을 때까지 기다리라. 01년생 가장 좋은 방법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6, 98</p>	<p>申</p> <p>44년생 행하면 능히 감당하리라. 56년생 과거에 쌓아 놓은 은 덕으로 인해서 특별한 배려나 사례를 받을 수다. 68년생 신속 하게 처리하면 상당한 재물을 얻을 수도 있느니라. 80년생 넘 치려는 것은 반드시 통제하여야만 한다. 92년생 가볍게 처리 할 문제가 아니니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04년생 간단 명료한 것이 최상이다. 행운의 숫자 : 32, 82</p>	<p>亥</p> <p>35년생 도전에 불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47년생 공원에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하였던 특이한 양상이 비친다. 59년생 세심하게 정 리 정돈해야 할 때다. 71년생 주된 것을 위주로 이롭게 간다면 타 개 할 수도 있다. 83년생 단기간 지연 될 수도 있으나 분명히 성사 는 되는 태양이다. 95년생 정확히 알아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7, 61</p>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 안성 죽산한미당 | 부여사비 향작지구

문의 전화 **1644-6430** |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